

‘K푸드밸리’로 지역성장 이끈다

“전통 연계 글로벌 콘텐츠 육성”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 전경.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새 동지를 틈 한국 콘텐츠진흥원.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는 국내 농수산식품업과 성장을 함께 해왔다. 지난 1967년에 설립된 후 내수소비를 기반을 맞춰 국내 농수산업의 유통을 도맡았던 aT는 1986년 사명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꾼 후 수출진흥과 농수산소비촉진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2012년 사명을 aT로 바꾸고 ‘글로벌 농수산식품 산업육성 전문 공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지난해 9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새 동지를 틈 aT는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K푸드밸리’를 육성해 글로벌 농수산업 유통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재수 사장은 “지역 농업관련 기관과 마리를 맞대고 한국형 푸드밸리 모델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닦을 계획”이라며 “대학과 기업, 공공기관이 협업하면 영광 굴비, 장성 사과, 고흥 유자, 순천 단감 등 특화된 농수산품을 수출할 수 있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미국 뉴욕과 LA에서 열린 나주 배 관측행사는 aT의 의지를 잘 보여준 행사다. 나주로 거점을 옮긴 aT가 미국 시장에서 나주 배를 알리기 위해 배

대학·기업·공기관 협업 특화된 농수산물 수출

중국 관세장벽 낮아져 지역 특산물 진출 활짝

농산물 수급안정 위해 장성에 비축기지 구축

수요가 많은 히스패닉과 아시안계 대형 유통업체와 손을 잡고 판촉행사를 연 것이다.

이처럼 aT는 새 터전인 광주·전남의 특산품을 글로벌 시장에 내놓으며 수출 전진기지화할 계획이다. aT는 최근 전남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의 소비력이 높아지면서 중국 식품에 비해 안전하다고 평가 받은 국내 농수산품을 많이 찾기 때문이다.

전남에는 목포항이 위치해 중국 수출에 유리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이 농산물의 91%, 수산물 99%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전남 등 지역 특산품의 수출활로가 트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aT는 지난해 중국 최대 온라인 마켓인 알리바바와 협력사업을 체결하고 국내 24개 업체, 872개의 농수산품을 온라인 시

장에 올렸다. 또 중국 동부에 있는 칭다오 물류기지에 이어 서부 내륙에 청두 aT센터를 열어 국내 농수산식품의 중국 진출 길을 넓히고 있다.

지역 농수산물 중소기업의 수출 체질 개선에도 적극적이다. aT는 지난해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나주 지역에서 건조식품·액상차·과일칩·김치류 등을 수출하는 4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기술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품질, 위생관리, 수출시장 개척 등의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지역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농산물 비축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장성에 부지도 확보하고 전남 지역을 국내 농수산물 수출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

aT의 주임무인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농수산물 수급이 많이 안정되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배추 생산량 급증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많은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교훈 삼아 민간 수급조정위원회와 수급조정매뉴얼 탄력적 운영 등 효율적인 수급관리시스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

지역에 새 동지를 틈 만큼 취업과 관련 지역 인재 초청 취업 멘토링을 실시하는가하면 취업 과정에서 광주·전남 출신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채용폭을 늘리는 등 취업난 해소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있는 한국 콘텐츠 진흥원(KOCCA·콘진원)은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을 뒷받침하고 구현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블루칩으로 통하는 게임, 방송, 만화, 대중문화 등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도맡고 있는 컨트롤 타워다.

지난해 혁신도시에 동지를 틈 콘진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에 나서 광주·전남 등 전국 지역 문화계에 새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문화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콘진원(원장 송성각)이 공을 들이고 있는 대표적 지역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지역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시장을 장악하는 콘텐츠) 발굴·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이다. 모두 80여 억원이 지역의 문화·생태를 활용한 테마 콘텐츠, 전통문화와 정신문화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 개발, 관광 연계 문화콘텐츠 개발에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지역 특화 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모두 19개 육성과제를 선정, 콘텐츠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

게임·방송·대중문화 등 콘텐츠 산업 컨트롤타워

문화 수도권 편중 완화 80억 들여 브랜드 개발

해외시장 공략 조직 개편 ‘융합전략 기획실’ 신설

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배경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콘진원은 이를 위해 ▲지역별 콘텐츠 지원사업 설명회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 대토론회 ▲지역순회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역 공공캐릭터 활성화 워크숍 ▲광주·전남지역 음악산업 포럼 등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펼친 바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사업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콘진원은 권역별로 글로벌 연계 게임 개발지원 사업이다. 모두 80여 억원이 지역의 문화·생태를 활용한 테마 콘텐츠, 전통문화와 정신문화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 개발, 관광 연계 문화콘텐츠 개발에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지역 특화 문화 콘텐츠와 연계해 모두 19개 육성과제를 선정, 콘텐츠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

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배경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 게 대표적이다. ‘사업간 융·복합’, ‘선택과 집중’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수준을 글로벌 시장의 주류로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이다.

두드러진 조직개편의 내용은 이종(異種) 산업간 창조적 융·복합이 활발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전략기획실’을 원장 직속으로 신설했다는 것이다. ‘융합전략팀’과 ‘사업기획조정팀’으로 짜여진 융합전략기획실은 융·복합 효과를 높이는 신사업 발굴을 주도하고 있다. 또 ‘정책연구실’을 ‘산업정책개발실’로 개편하는 한편, 콘텐츠산업 각 분야의 가치평가모형 개발을 담당할 ‘콘텐츠 가치평가 TF팀’도 신설했다.

콘진원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콘텐츠 창의교실’을 열어 대도시 대비 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 아동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도 콘진원이 제작을 지원한 콘텐츠 상영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빛가람홀’, ‘콘텐트 도서관’ 등 주요 시설을 개방해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송성각 한국콘텐츠 진흥원장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라며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과 결합된 글로벌 콘텐츠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제17회 함평
나비 대축제
17TH HAMPYEONG BUTTERFLY FESTIVAL
2015. 5. 1 (금) > 5. 10 (일)
함평엑스포공원

창사 63주년
과일보다 달고
밥보다 든든한 함평단호박!

출출할때! 샐러드용!
다이어트! 식사대용!
다양한 웰빙요리에!

단호박 주요제품

단호박 조청	단호박 된장	단호박 고추장
단호박 탁주, 모주	단호박 맥	단호박 국수

단호박 사과 6월10일경 출시!
www.worlyanh.com

전남 함평군 월아면 일재로 1516
T:(061)323-7730
www.worlyanh.com

함평단호박 향토산업사업단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200
TEL:061)320-3918 FAX:061)320-3934